

방송 소식

김수환추기경·김원봉목사 '팔만대장경' 캠페인 동참

불교방송 문화유산의 해 1백일 특집 '21세기 팔만대장경을 만나다' (PD 안희경) 캠페인에 김수환추기경(사진 위) 김원봉목사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추기경과 김목사는 4월7일과 13일부터 각각 일주일간 팔만대장경 전신화에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또 가산불교연구원장 지관스님과 김영식신부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청주BBS 개국특집 다큐 '통일의 꿈...' 등 전파

주파수 96.7MHz 불교청주방송이 25일 개국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5일 오후2시 개국기념법회를 시작으로 다큐멘터리 '통일의 꿈, 미래의 세상'과 각계 인사와 '축하합니다' 등을 방송한다. 이어 오후 6시30분부터 10층 문화센터에서 월주님 주빙덕 총회도 자사 등이 참석, 개국축하리셉션도 가질 계획이다.

우바이 MC '인기몰이'

공중파·케이블TV서 말썬 재치 '진가 발휘'



김수진씨



김수진씨



김수진씨

불심으로 무장한 우바이MC들의 왕성한 활동이 무르익은 봄의 방송가를 더욱 화사하게 하고 있다. 개그우먼 김수진씨, 탤런트 김수정 김소연씨, 영화배우 이해은씨는 볼거리와 더불어 시청자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MC 이영현씨, 아나운서 이익선씨, 탤런트 김나운씨 등은 중후무진 MC로서의 굳건한 자리매김을 했다.

김수진 김수정씨는 불교TV '신나는 연꽃동산'과 MBC '보보보'로 어린이들의 다정한 친구가 됐다. 김수정씨는 BBS '봄나눔동산'을 진행한 경험을 자랑하는 어린이프로그램의 베테랑 진행자. 개그우먼으

김수진 btn '신나는 연꽃...' 진행 이익선 KBS '연예가중계' 안주인

로 리포터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김수진씨는 첫 MC로서의 설렘으로 더욱 열심히 했다. MBC '인기가요 베스트 50'을 맡은 여고생 탤런트 김소연씨는 특목 뛰는 진영이 오히려 참신해 신세대불자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영화배우 이해은씨는 영화에 관련된 모든 궁극점을 풀어준다는 기치아래 MBC '퀴즈 영화탐험'을 진행하며 인기몰이에 힘쓰고 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불교TV '자비의 천수천안'의 진행자 이익선씨는 연예계소식을 한눈에 보여주는 KBS '연예가중계'와 기상캐스터까지 맡고 있어 진정한 진행자로 불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재치있는 말솜씨가 일품인 MBC '사랑의 스튜디오' 이영현씨, 즐겁고 상쾌하게 열어주는 MBC '신나는 아침세상' 상성들이 김나운씨 등도 방송가에서의 맹활약으로 개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익선씨



김소연씨



김나운씨

김지연 기자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생명바쳐 불법심은 아들①

(특별상)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그리고 아내, 비록 남의 집에서 월세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었지만 행복했다. 두 아들은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주고 있었다. 그러나 큰 아이 복산이가 초등학교 1학년 되던 해 우리 가정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다.

1991년 12월 복산이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몇달전부터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해 동네의 작은 병원을 다녔지만 병원에서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고 또 큰 문제도 없었다. 그렇게 몇 의사없이 지냈는데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던 복산이가 눈이 사시가 되는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 마침내 종남동에 있는 서울중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 얼마 했는데 검사결과가 악성 뇌종양이었다.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선생님은 수술을 한 다해도 완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술을 해도 완치를 장담할 수 없으니...

뇌종양 아들 살리려 3년동안 부처님께 기원 가피에 감사했는데 다시...



그림·이준석

지금껏 한번도 찾지않던 부처님을 부르며 빌었다. '제발 복산이를 살려달라'고. 35년을 살아오며 한번도 종교를 갖지 않았던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사람들이 종교를 운운할 때 나는 말했었다.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종교는 뭐하러 믿느냐'고 말이다.

아들이 병이 나기 1년전인 1990년 서른네살이 되던 해 내게 뜻하지 않은 병마가 찾아온 일이 있다. 일을 못하는 것은 물론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는 죽음이든 고통이든 모두를 걱정이지만 자만이 아니었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종교란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며, 두렵기는 했어도 치료에 다른 것에 의지할 생각은 없었다. 다행히 3개월정도 치료와 요양으로 완치되었다.

하지만 이제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 잘못될지도 모른다 현실앞에 나는 죽고사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의지할 곳이 필요했다. 그때부터 난 부처님을 찾게 됐다. 전에 기독교에서 기도도 병을 치료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불교로 귀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불연(佛緣)에 의한 것이라 믿고 있다.

복산이가 뇌수술을 무사히 끝내고 방사선 항암치료를 병행하며 치료를 계속하는 동안 나는 부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다. 복산이를 살려달라고. 그때 나는 작은 영양소에서 판매영업을 하고 있었다. 내가 담당하던 지역에는 육천암이라는 사찰이 있었고 그 절에는 개천가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기도처가 있었다. 내가 하던 일이 재구약만 관리하면 시간을 낼 수 있는 일이었기에 부지런히 움직이면 한시간 정도의 시간을 얻을 수가 있었다.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 가서 매일 한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 장마철 흐르는 눈물 빛물을 닦지도 못하고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 혹한에도 오직 관세음보살님께 매달렸다. 그렇게 매일 기도를 드리게 된지 1년이 넘었고 직장을 옮기게 됐다. 더이상 시간을 낼 수 없게 되자 기도처를 집으로 옮겨 기도를 계속했다.

관음 3대 성자인 보문사 종관암 보리암, 그리고 갖바위부처님 등 종교는 무엇인가 찾아다니며 기도를 했다. 그러기를 3년. 부처님의 가피였는지 우리 복산이는 별 문제없이 지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시련은 다시 찾아왔다. 복산이의 머리에 종양이 재발했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낙담으로 떨어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었다. 내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의지할 분은 오직 부처님 뿐이었다. '내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인가?'라며 마음을 추스렸다.

최성구 (서울 강서구 통촌동)

The old sages were self-retrained, penitent; having abandoned the objects of the five senses, they studied their own welfare.

옛 선인들은 자신을 억제하는 고행자였고, 그들은 오욕(五欲)의 대상을 버리고 자기의 참된 의(義)를 행하였다.

Having heard and considered that Dhamma, the wise man practising the Dhamma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highest Dhamma, becomes learned, expert, and skilful, strenuously associating with such a learned

teacher. 어진이는 이것을 이해해서 듣고, 아처에 따라 가르침을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함에 게으르지 않는다면 분별할 줄 아는 이, 훌륭한 이가 된다.

He who serves a low teacher, a fool who has not understood the meaning, and who is envious, goes to death, not having overcome doubt, and not having understood the Dhamma. 아직도 사물을 이해 못하고 질

투심이 있는 소인이나 어리석은 이를 가까이 삼긴다면, 이 세상에 사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의심을 버리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다.

Let him in due time go to the presence of his teacher, let him be humble after casing away obstinacy, let him remember and practise what is good, the Dhamma, self-restraint, and chastity.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때를 맞추어 스승을 찾아가라. 사물과 진리와 자제(自制)와 청정한 행동을 마음에 두고 이를 설명하라.

- *sage (n) 현인, 선인
*practise (v) 연습, 실천
*intemous (a) 굼뜨지 않는, 힘껏 노력하는
*associate with ~와 교제하다
*nerve (v) 삼기다, 시종하다
*envious (a) 시기심이 많은, 질투하는, 샘 내는
*doubt (n) 의심, 불신
*presence (n) 대면, 배설
*in due time 때가오면, 적당한 때에
*obstinacy (n) 완고, 고집
*chastity (n) 청정(淨), 절음(節欲)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86)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자,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 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가격 : 50,000원 (배송비 별도)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하늘에 핀 연꽃

봉축행사의 대미를 이루는 축제의 장엄물

贊佛애드벌룬



봉축등

●재질: 연꽃 고급 P.V.C
●규격: 약 250x830(mm)



●종류: 신을 따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순서를 소에 비유하여 10가지로 나타낸 십우등
●장식등: 피노라리와 같은 부처님의 경배를 위하여 표현한 장식성도의 팔다행등(식가제본일대기)

봉축현수막



●단형휘장: 크기 및 보급가격(90Cm×6m) ₩40,000/(90Cm×8m) ₩50,000



●불교기(오색)휘장: 크기 및 보급가격(90Cm×6m) ₩40,000/(90Cm×8m) ₩50,000



봉축리본



●가격 (대) 100매 ₩30,000 (소) 100매 ₩25,000

●1000매 이상 주문시 사량율을 넣어 드립니다.

기획제작 권삼田佛事

서울시 중구 수송동 46-1 (영동빌딩 2002호)
전화: (02)732-6095-6
FAX: (02) 735-5293

●규격: 지름(280Cm) 폭(180Cm)
●현수막: 기본 90Cm×6m
선택 90Cm×8m(20,000원 추가)
●보급가격: ₩480,000(현수막 기본 Size 포함)
전화주문 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자랑은 출장비 추가)

본 애드벌룬은 사용후 보관하셨다가 행사때마다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